

# 유럽, 이탈리아발 코로나19 확산에 몸살

## 伊 북부서 중·남부까지 확산 주변 6개국 동시 확진자 발생 6개국 회의 “국경봉쇄 없다”

이탈리아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주변국까지 손을 뻗치자 유럽 국가들이 잔뜩 긴장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에 집중됐던 코로나19 환자가 이제는 남부 시칠리아주, 중부 토스카나주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이탈리아가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에서는 25일(현지시간)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서도 같은 날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로 나왔는데 이들은 대부분 최근 이탈리아에 체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한 스위스 남부 티치노 칸톤에서는 최근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에 속한 밀라노를 다녀온 70세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스위스 보건 당국이 밝혔다.

이탈리아 접경지역인 오스트리아에서도 이탈리아인 2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 이들은 24세 동갑내기 남성과 여성으로,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21일 롬바르디아주에서 차를 몰고 오스트리아 티롤로 넘어왔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두 사람이 이탈리아 베르가모에서 출발해 오스트리아 티롤까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만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두 도시를 연결하는 가장

짧은 자동차도로는 374km에 달한다.

아드리아해를 끼고 이탈리아와 인접한 크로아티아에서도 밀라노를 여행한 젊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격리돼 있으나 병세가 좋은 상태라고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가 발표했다.

코로나19 환자가 모두 퇴원했다고 밝혔던 프랑스에서도 중국인 1명과 프랑스인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추가로 받았다. 중국인은 지난 7일 중국에서 들어와 현재 파리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프랑스인은 최근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를 다녀왔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평소 같으면 인파로 넘칠 세계적 관광지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이 25일(현지시간)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독일에서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각각 1명씩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중부 도시 괴핑겐에서 나온 확진자는 25세 남성으로, 최근 밀라노를 여행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47세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스페인에서는 카나리제도 테네리페섬의 4성급 호텔 투숙하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출신 의사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바르셀로나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1명 나왔는데 이는 스페인 본토

첫 확진 사례다.

코로나19가 이탈리아를 넘어서 주변국으로 확산하는 조짐이 보이자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스위스, 독일, 크로아티아 등 주변 6개국은 이날 로마에서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회의가 끝나고 난 뒤 7개국 장관들이 코로나19 확산에도 국경을 폐쇄하지는 않되 활발한 정보 공유를 위해 매일 의사소통한다는 공종의 원칙을 담은 문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원전사고 후쿠시마산 어패류 출하 제한 풀려

### 오염수 방류계획 어민들 반발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어패류(어류·조개류)에 대한 일본 당국의 출하 제한이 풀렸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일본 원자력재해 대책본부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히는 홍어의 출하 제한을 지난 25일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후쿠시마현 어부들은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대기와 해양으로 누출된 2011년 3월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전면 금지됐던 조업을 이듬해인 2012년 6월부터 시험적으로 재개했다.

일본 당국은 시험조업으로 잡는 어패류의 세슘 농도를 검사해 식품위생법상의 기준치(kg당 100벵크렐 이하)를 넘는 어종의 출하를 최대 44종까지 제한했다.

그러나 그동안 검사에서 기준치를 충족

하는 어패류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출하 제한을 풀었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홍어에 적용하던 제한까지 해제했다.

요미우리는 후쿠시마산 어패류의 출하 제한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출어 횟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시험조업을 정상조업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후쿠시마현산 어패류의 출하 제한 해제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흘려보낼 경우 다시 조업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30년 독재’ 무바라크 이집트 前 대통령 사망

2011년 ‘아랍의 봄’ 민중봉기 때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사진) 이집트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91세로 사망했다.

이집트 국영TV는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수도 카이로의 한 병원에서 질병으로 숨졌다고 전했다. 이집트 정부는 무바라크의 사망과 관련해 이날부터 사흘간 전국적인 애도일을 선포했다. 무바라크는 ‘현대판 파라오’로 불릴 정도로 철권을 휘두른 독재자로 평가받는다.

1981년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에 당선된 뒤 30년 동안 장기집권하다가,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쓴 ‘아랍의 봄’ 당시 국민의 거센 퇴진 시위로 그해 2월 11일 대통령직에서 사퇴했다.

2011년 4월 체포된 무바라크는 2012년 재판에서 시위 참가자 850여 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중형 판결을 받았지만 나중에 무죄가 선고됐고 2017년 3월



석방됐다.

이후 대중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무바라크는 작년 10월 소셜미디어인 유튜브 등장에 제4차 중동전쟁을 회상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무바라크는 집권 당시 북한에 우호적인 지도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 일본 크루즈선 하선자 또 코로나19 확진

### 격리 없이 귀가시킨 결정 논란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하선한 60대 여성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여성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 중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20일 하선해 시코쿠 지역 도쿠시마현 소재 자택으로 돌아갔다. 이 여성은 마스크를 쓰고 전자, 항공기, 자가용 등을 이용해 귀가한 뒤 대기하다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차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감염이 확인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하선 후 일본 국내에서 코로나

19 감염이 확인된 사례는 도치기현 거주 여성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하선자에 대해 별도의 격리 없이 귀가하게 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논란이 거듭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 등 항공편으로 자국민을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본국으로 이송한 국가들은 귀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했다.

도쿠시마현 거주 60대 여성의 코로나19 감염은 시코쿠 지역 내 첫 감염 사례이기도 하다.

NHK에 따르면 26일 오전 0시 현재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총 862명이다. /연합뉴스

## 美 코로나19 치료제 첫 임상시험 시작

### “백신, 1년 이상 걸릴듯”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1년이 걸릴 것이라고 미국 보건 관리가 말했다고 로이터·AFP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이날 코로나19 백신이 시험을 거쳐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앞으로 1년 또는 1년 반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백신은 바이오 업체 모더나가 개발한 것으로 쥐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파우치 소장은 사람을 상대로 잠재적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임상 1상

시험을 하는 것은 1달 반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파우치 소장은 또 NIH가 길리어드 사의 인스의 렘데시비어(Remdesivir)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고 안전함을 살펴보기 위한 첫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시험에 참여한 사람은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탈출한 미국인 승객으로, 그는 현재 네브래스카대학 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중국은 4월 27일 렘데시비어의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렘데시비어가 지금까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유일한 처방일지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 운전자, 게임하다 충돌 사고”

### 美NTSB 조사 결과 발표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018년 3월 테슬라 차량을 자율주행 모드로 몰다가 충돌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가 당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AP통신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

NTSB는 이날 해당 사고에 관해 23개월간 벌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을 작동하더라도 운전자들은 도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셉웰트 NTSB 회장은 기조발언에서 부분 자율주행 모드가 있는 차량이 곧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뜻하지 않는다고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한다고 해도 책을 읽거나,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임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2018년 사고 당시 운전자인 월터 황은 테슬라 SUV 모델X를 오토파일럿 모드로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 분리를 틀어받고 사망했다.

사망자 유족은 이후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